

흠의 개연적 추론에 대한 고찰

강 은 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I. 서론

인간의 인식에 있어서 '추론'(reasoning)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문제는 합리론과 경험론 구별의 기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근대 인식론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관념'(idea)만으로 이루어지는 인식의 경우 추론의 역할이 핵심적인 것이 당연하지만, 사실의 문제를 인식하는 데에 있어서도 추론의 역할이 핵심적일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논의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근대 경험론을 가장 극단으로 밀어붙였다고 하는 흠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흠은 <인성론>에서 추론을 관념 간의 관계만을 다루는 이성의 성질이라는 좁은 의미보다는 훨씬 더 넓게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추론이 단지 확실성을 가지는 관념 간의 관계만을 다루는 데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인식 작용을 보다 더 넓게 포괄하는 작용이라고 볼 여지가 생긴다. 이러한 맥락에서 흠은 추론을 탐구 대상에 따라 '논증적 추론'(demonstrative reasoning)과 '개연적 추론'(probable reasoning)으로 구분했으며, 이 중에서 개연적 추론을 더 중시했다.

개연적 추론이 확실한 지식을 가져다주지는 않지만 논증적 추론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 흠이 직면한 문제는, 개연적 추론의 정당화를 포기한 이후 인간의 인식이 신뢰할만한 것인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흠은 기존의 이성 에 의한 정당화의 방식을 포기했다고는 하지만, 개연적 추론이 단지

우연(chance)적인 작용과는 다르다는 것을 밝혀야 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흄의 개연적 추론이 어떠한 의미인가, 또한 이 추론이 어떻게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핵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질문에 대답하려는 시도를 통해 흄의 회의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이 드러나기를 기대해 보자.

II. 본론

1. 추론을 이루는 개념들

추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추론의 조건을 이루는 여러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흄은 ‘지각’(perception)을 인간의 정신 안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통칭하기 위한 가장 넓은 의미로 쓰고 있다. 지각은 지각의 힘과 생생함의 정도에 따라서 ‘인상’(impression)과 ‘관념’(idea)으로 나뉘지며, 더 이상 구별 가능한지 불가능하지 않은지에 따라서 ‘단순지각’(simple perception)과 ‘복합지각’(complex perception)으로 나뉜다.

‘인상’은 ‘영혼에 처음 출현하는’¹⁾ 것으로 ‘감각작용’(sensation), ‘정념’(passion), ‘정서’(emotion)를 말한다. 감각작용은 외적 경험에 속하고, 정념과 정서는 내적 경험에 속하며, 외적 경험은 감각인상이고 내적 경험은 반성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 ‘관념’은 희미한 상(image)인데, 사유와 추론의 기초가 된다.

인상과 관념은 유사하지만, 단순인상에서 모든 단순관념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인상은 힘(force)이나 생생함(vivacity)의 정도(degree)가 단순관념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정도(degree)의 차이이기 때문에 단순관념과 단순인상의 본성은 같다.

어떠한 관념이 주어졌을 때 그 관념을 확실하게 알고 싶다면, 우

1) Hume, D. *A Treatise of Human Understanding*, Selby-Bigge,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1쪽(이하 *Treatise*로 표기).

선 이 관념을 더 이상 구별할 수 없을 때까지 나누어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나온 단순관념은 그와 유사하지만 생생함의 정도가 큰 단순인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이 과정을 반복해서 ‘최초의 인상’(primary impression)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흠이 말하는 ‘최초의 인상’은 감각인상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반성인상도 단순하지만, 감각작용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념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흠이 반성인상으로 보는 것은 정념(passion)이나 정서(emotion)인데, 이러한 감정들은 최초의 감각인상에서 관념으로 전이(transition)한 뒤에 비로소 우리에게 어떠한 정서나 정념을 일으킨다. 관념이 정신에 영향을 미쳐서 생긴 정서나 정념이 내적지각 중에서도 반성인상이 되고, 반성인상이 희미해지면 반성관념이 된다.

감각인상이 발생적으로 반성인상을 앞서기 때문에 인상과 관념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흠이 반성인상보다 감각인상을 더 중시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흠의 기본 입장은 관념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관념의 최초의 인상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초의 인상이 감각에서 온다면 우리가 인식을 탐구하고자 할 때 일차적으로 중심에 놓고 탐구해야 하는 원천은 감각경험이다.²⁾

정신에 현전하며 작용하는 단순관념들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복합관념을 만든다. 그런데 이 방식은 전적으로 우연적이지는 않다. 우리가 실제로 인식하는 일종의 자료들은 대부분 복합관념들이지만, 복합관념들은 단순관념들의 특정한 연결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복합관념을 알기 위해서는 단순관념으로 쪼개 봐야 하고, 단순관념들을 연결해 주는 관계들의 원리를 탐구해 보아야 한다.

흠은 『인성론』에서 관념과 관념을 연결하는 관계로 ‘자연적 관계’와

2) 흠이 최초의 인상이 감각에서 온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이 인상의 근원적 원인ultimate cause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한다.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 외부의 대상인지, 정신의 창조적인 능력인지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단지 우리는 ‘우리 지각들의 정합성’을 통해서 추리(inference)한다는 것이다. 같은 책 84쪽.

‘철학적 관계’를 제시한다. 자연적 관계는 유사³⁾(similarity), 시간과 공간상에서의 근접(contiguity), 인과(causality)이며, 철학적 관계는 유사(resemblance), 반대(contrariety), 성질의 정도(degree in any quality), 양과 수의 비율(proportion in quantity or number), 동일(identity), 인과(causality), 시간과 장소의 관계(relations of time and place)이다. 근접 관계는 시간과 장소 관계의 일종이기 때문에, 분류상으로만 보면 자연적 관계인 유사, 근접, 인과 관계는 철학적인 관계에도 해당된다. 하지만 흄이 굳이 관계를 자연적 관계와 철학적 관계로 구분하는 이유는 분류하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연적 관계는 ‘상상력에서 두 관념을 연결하고, 하나가 자연스럽게(naturally) 다른 하나를 도입하는(introduce)’⁴⁾ 일종의 ‘성질’(quality)을 의미한다. 철학적 관계는 이보다 넓은 의미로, 공상(fancy)에서 관념들이 자의적으로 합일(union)될지라도 비교하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상황’(circumstance)을 말한다.

자연적 관계는 관념들 간의 자연적인 전이(transition)가 일어나는 것을 철학적 관계보다 더 강조하기 위해 쓰인 것 같다. 자연적 관계의 원리의 핵심은 한 관념에 이어서 다른 관념을 떠올릴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전이’이며, 이는 인간의 본성의 한 측면을 드러내주는 ‘성질’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연적 관계는 ‘상상력’이나 ‘관념 연합의 원리’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해보도록 하고,⁵⁾ 다음은 철학적 관계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보자.

3) 흄의 철학에 있어서 유사 관계는 확실성이나 필연성을 주장할 수 없는 사실의 문제에서 관념 간의 연결이 나름의 명증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인과 관계를 가진다고 여겨지는 대상들 간의 필연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흄은 그러한 것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신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불변적 결합’(constant conjunction)일 뿐이다. 여기서 불변적 결합은 비슷한(like) 대상들의 유(species)가 반복해서 발견되는 것을 의미한다. 흄은 관념 간의 관계 중에 유사 관계가 확실하다는 논의를 통해 유의 성립에 나름의 확실성을 제공했다. 이러한 면을 살펴보면 유사 관계가 흄의 철학 체계를 극단적인 인식론적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고도 볼 수 있다.

4) 같은 책 13쪽.

흠에 따르면, 철학적 관계에서 유사, 반대, 성질의 정도, 양과 수의 비율의 관계는 오직 관념에만 의존하며, 관념이 변하지 않는 한 그 관계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성(certainty)을 가진 지식(knowledge)이 성립할 수 있다. 반면에 동일, 인과, 시간과 장소의 관계는 관념이 변하지 않아도 그 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지식이 성립할 수 없는 ‘사실의 문제’(matter of fact)이며, 확실성의 영역이 아니라 개연성(probability)의 영역이다.

이처럼 관념간의 관계만을 추론을 통해 따지는 확실한 지식의 영역과 대상 간의 관계를 따지는 개연성의 영역 사이의 엄격한 구분은 로크의 구분이기도 했으며, 고대철학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의견과 지식 사이의 구분과도 맞닿아 있다. 그런데 흠의 강조점은 확실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개연적인 사실의 문제였다. 지식의 영역이 확실성을 가지기는 하지만 매우 제한적이다. 반면에 사실의 문제는 우리의 인식 영역에서 지식의 영역보다 그 비중이 훨씬 크다. 이 때문에 흠은 지식의 문제보다는 사실의 문제에 더 많은 논의를 할애했다. 그렇다면 추론의 의미는 무엇이며 추론은 지식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또한 논증적 추론과 개연적 추론의 특징은 각각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자.

2. 추론의 의미

흠은 추론을 서로 관련된 둘 이상의 대상들이 갖는 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인 관계들을 비교하거나 발견하는 것이라고 한다.⁶⁾ 또한 지식은 관념 간의 변하지 않는 관계를 발견하는 것이며, 개연성은 대상 간의 관계를 발견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확실한 지식을 성립하게 하는 추론을 논증적 추론(demonstrative reasoning)이라고 한다면, 개

5) 주 9 참고.

6) “모든 종류의 추론은 서로 관련된 둘 이상의 대상들이 갖는 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인 관계들을 오직 비교하고 발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같은 책, 73쪽.

연성만을 가지는 추론은 개연적 추론(probable reasoning)이다.⁷⁾

그런데 “대상들이 갖는 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인 관계들을 비교하거나 발견하는” 추론은 논증적 추론보다는 개연적 추론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논증적 추론은 대상들의 관계가 아니라 관념들의 관계만을 다루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연적 추론의 규정들을 통해 논증적 추론이나 추론 일반을 기술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개연적 추론이 대상 간의 관계를 비교하거나 발견하게 한다면 논증적 추론은 관념 간의 관계를 비교하거나 발견하게 한다. 그렇다면 개연적 추론과 논증적 추론을 포괄하는 추론은 관념이나 대상 간의 관계를 비교하거나 발견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추론을 통해 비교하고 발견해 얻는 관념은 추론의 재료였던 관념이나 대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추론은 통해 얻어진 관념은 2차 관념이거나 그 이상의 추상 관념이다. 따라서 추론은 주어진 관념이나 대상을 넘어서는 작용이기도 하다.

앞서 열거한 철학적 관계 중에서 추론의 조건에 들어맞는 관계는 관념 간의 관계 중에서는 양과 수의 비율⁸⁾이며, 대상 간의 관계에서는 인과이다. 관념 간의 관계에서 유사성, 반대, 성질의 정도는 추론보다는 직관에 가까우며, 대상 간의 관계에서 동일성과 시간과 장소의 관계는 감관에 두 대상이 모두 현전한다는 점에서 추론보다는 지각에 가깝다. 양과 수의 비율은 지식이 성립할 수 있는 데에 반해 인과는 개연적일 뿐이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있지만, 두 관계 모두

-
- 7) 『인성론』에서 ‘개연적 추론’(probable reasoning)이란 표현이 매우 빈번하게 발견되는 데에 비해 ‘논증적 추론’(demonstrative reasoning)이란 표현은 잘 쓰이지 않는다. 하지만 흄이 논증적 추론이란 표현을 지식이나 확실성을 발견하는 방법이란 의미로 분명히 사용하고 있으며(예컨대 p72, p118), 비슷한 표현으로 ‘과학적 추론’(scientific reasoning)(p82)이나 ‘추상적 추론’(abstract reasoning) (p69)이란 표현도 가끔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위의 구분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 8) 흄은 양과 수의 비율의 관계를 대수의 경우와 기하의 경우에서 구분하고 있다. 대수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한 관계이지만 기하는 대수에 비해 확실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관계 모두 과학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과학적 지식’(scientific knowledge)이다. 같은 책 82쪽 참고.

관계를 비교하고 발견하는 추론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각각의 추론의 특징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3. 논증적 추론

홍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지식에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명제는 직관적으로 확실하거나 논증적으로 확실해야 한다.⁹⁾ 어떤 관념들이 서로 유사하거나 반대된다고 하거나, 한 관념의 성질이 다른 관념의 성질과 비교했을 때 그 정도가 어떠하다고 하는 것은 한 눈에 보고 직관된다는 것이다.

논증적으로 확실하다는 말의 의미는 해당 명제가 증명(demonstration)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명제가 증명되었다는 것은 그 명제가 증명된 바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상상력(imagination)에서 표상하는(conceive)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¹⁰⁾ “불합리한 것은 이해할 수 없고”¹¹⁾ 특정한 방식과 순서대로만 표상될 수 있다.

반면에 사실 문제의 영역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필연적 사실이라고 믿는 관념도 그 반대의 경우를 상상력에서 명석하게 표상하는 것이

- 9) 직관적으로 확실하다는 말의 의미를 홍이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로크와 매우 비슷한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 같다. 그런데 주3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유사 관계가 직관에 의존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홍의 철학에서 직관은 큰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직관은 논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기도 하다.
- 10) ‘상상력’(imagination)과 ‘표상하다’(conceive)는 문맥상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홍은 상상력이 우리의 인식능력 중에서도 가장 자유로운 능력이지만 이를 일정한 방식으로 작용하게 하는 어떠한 원리가 있다고 보았는데, 이것이 관념 연합의 원리이다. 관념 연합의 원리는 (자연적 관계와 마찬가지로) 근접, 유사, 인과를 꼽을 수 있다. 상상력이 관념 연합의 원리나 자연적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상상력이 자유로우면서도 자연스러운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책 10쪽 참고.
표상작용(conception)은 추론(reasoning)과 판단(judgement)을 모두 포괄하는, 매우 넓은 인식작용이다. 표상 작용과 추론, 판단은 우리가 대상을 표상하는 특정한 방식일 뿐이다. 같은 책 97쪽 주 참고.
상상력의 자유로운 성질과 표상의 포괄적인 성질은 통하는 면이 있다.
- 11) 같은 책 95쪽.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확실한 관계가 될 수 없다.

4. 개연적 추론

1) 개연적 추론의 특징

이제까지 개연적 추론, 논증적 추론의 의미와 차이를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논증적 추론은 관념 간의 관계만을 다루기 때문에 확실한 지식 성립의 기초가 되며, 개연적 추론에서는 대상 간의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확실성을 지니는 지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두 추론의 핵심적인 차이였다. 그러면 개연적 추론에 대해 좀 더 탐구해 보자.

개연적 추론의 유일한 예는 원인에서 결과, 혹은 결과에서 원인을 추론하는 인과 추론이다. 그러면 인과 추론을 통해 개연적 추론을 탐구해 보도록 하자.

“관념들의 관계를 밝힐 수 없고 오직 대상들의 관계만 밝힐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개연성은 어떤 측면에서는 기억과 감각의 인상들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다른 측면에서는 관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개연적 추론에 인상이 전혀 혼합되지 않는다면 그 결론은 완전히 가공적일 것이다. 그리고 그 추론에 관념이 혼합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관찰하는 정신의 작용은 정확히 말해서 추론이 아니라 감각작용일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개연적 추론에는 필연적으로 정신에 현전하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것은 보이는 것이거나 기억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보이거나 기억하고 있는 것에서 이것과 연관된 보이지도 않고 기억되지도 않은 어떤 것을 추리한다.”¹²⁾

“원인이나 결과로부터 추론하는 정신의 시야는 보거나 기억하는 대상들을 넘어서지만, 정신은 그 대상들에 대한 시각을 결코 완전히 버릴 수는 없으며, 그 자신의 관념을 인상이나 또는 적어

12) 같은 책, 89쪽.

도 인상과 대등한 기억의 관념과 혼합하지 않고 오직 정신의 관념만으로 추론할 수도 없다.”¹³⁾

첫 번째 인용에서 흄은 개연적 추론의 몇 가지 규정을 제시한다.

개연적 추론은

- (i) 대상 간의 관계의 발견이다.
- (ii) 기억과 감각의 인상에 의해 기초 지어져야 한다.
- (iii) 관념에 의해 기초 지어져야 한다.

흄은 (ii)와 (iii)에서 개연적 추론의 특징으로 인상과 관념을 제시한다. 인상은 “기억과 감각의” 인상이며, “기억과 감각에 현전하는” 것이다. 여기서 “현전하다”(present)는 “보이는 것이거나 기억된 것”이란 의미이다. 또한 개연적 추론에는 논증적 추론의 조건인 관념에 인상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개연적 추론에서 보이거나 기억된 인상이 혼합되어 있지 않으면, 추론은 단지 “가공적”(chimerical)이며, 관념이 없다면 개연적 추론은 감각작용에 불과하다고 한다. 인상과 관념은 힘과 생생함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생생한 지각인 인상은 감각작용과 연관되며 흐릿한 지각인 관념은 추론이나 사유와 연관된다.

(i)에서 흄은 개연적 추론이 대상간의 관계의 발견이라고 한다. 이는 지식은 관념간의 관계를 다루고 사실의 문제는 대상간의 관계를 다룬다고 언급을 상기해 보면 익숙한 말이지만, 이때의 “대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애매할 수 있다. 왜냐하면 흄이 비록 개연적 추론이 대상 간의 관계의 발견이라고 주장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외부 대상이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흄은 우리의 지각이 어디서 유래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했다.¹⁴⁾

인상과 관념의 구별과 대상에 대한 위의 논의를 통해 ‘관념 간의

13) 같은 책, 82쪽.

14) 주 2 참고.

관계'와 '대상 간의 관계'라는 구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 관념 간의 관계와 대상 간의 관계는 각각 관념만으로 하는 추론과 관념과 인상을 섞어서 하는 추론을 말한다. 물론 이때 흄의 초점은 우리가 개연성의 영역에서 실제로 (외부)대상 간의 관계를 다루는지의 여부가 아니다. 흄의 강조점은 관념에 생생한 지각, 혹은 현전하는 인상이 섞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가 논증적 추론과 개연적 추론의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개연적 추론이 대상 간의 관계를 다룬다는 것은 개연적 추론에 생생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¹⁵⁾

두 번째 인용을 살펴보자. 인과 추리¹⁶⁾는 “보거나 기억하는 대상”, 즉 현전하는 대상을 넘어서는 추론이다. 그런데 인과 추리에도 인상이나 인상에 버금가는 관념이 필요하다고 한다. 즉 인과 추리도 개연적 추론과 마찬가지로 관념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생생한 지각, 인상이나 인상에 버금가는 생생함을 지닌 관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¹⁷⁾ 따라서 인과 추리에도 지각의 힘(force)이나 생생함(vivacity)이 필수적이다.¹⁸⁾

이를 통해 인과 추론이 개연적 추론과 동일한 추론일 뿐만 아니라 흄이 개연적 추론의 조건으로 (iii)보다 (ii)를 훨씬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념과 인상은 모두 개연적 추론, 즉 인과 추리에 있어

15)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흄은 사실의 문제에서 인상이 혼합되어 있지 않은 추론을 비판하고 있다. 관념만으로 하는 추론은 단지 가공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예컨대 원인의 필연성에 대한 흄스, 클라크, 로크의 논증을 반박하는 흄의 논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흄은 사실 문제와 관념 간의 문제를 구분, 혹은 개연적 추론과 논증적 추론의 구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16) 흄은 개연적 추론인 인과추론에 한해서 추론(reasoning)과 추리(inference)라는 표현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도 인과추론과 인과추리는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

17) 흄은 지각을 생생함을 기준으로 인상과 관념으로 나누는데, 이 둘의 구분의 기준인 생생함이 모호할 수 있으며, 종종 인상보다 관념이 더 생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현전하는 인상과 거의 같은 의미에서 ‘현전하는 관념’(present idea)이라는 표현도 사용한다.

18)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흄은 개연적 추론이 감각의 일종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같은 책 103쪽 참고.

서 핵심적인 조건이지만, 많은 경우에 (ii)의 조건은 지켜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실의 문제와 지식의 문제의 혼동은 오류의 원천이나 끝이 나지 않는 논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논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 흠이 드는 예를 하나 살펴보자. 어떤 역사가가 카이사르에 대해 탐구하려고 한다. 이 때 역사가가 카이사르가 피살된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려면 궁극적으로 현전하는 기억이나 인상을 가진 목격자의 증언이나 문자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카이사르의 피살이라는 사건은 사실의 문제이며 개연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생생한 인상이 있어야 한다. 역사가는 처음에는 관념에서 출발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최초의 인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런데 카이사르의 피살 일시를 관념 사이의 관계를 통한 논증만으로 증명하려고 한다면, 즉 생생한 지각이나 현전하는 인상이 없는 개연적 추론을 하려고 한다면, 이는 단지 “가설적 논변”(hypothetical arguments)이며 “가정에 의존하는 추론”(reasonings upon a supposition)¹⁹⁾에 불과하다.

이처럼 대상 간의 관계를 다루는 개연성의 영역에서는 어떠한 가정도 없이 논변을 구성해 증명하는 것이 범주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또한 지식의 문제와 사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나뉘지는 지점이기도 하다.

또한 개연성의 영역에서는 아무리 필연적인 것으로 보이는 사실의 문제에서조차 그 반대의 경우를 명석하게 표상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 이를테면 내일 새벽에도 태양이 떠오를 것이라는 관념은 필연적인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일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를 표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추론과는 반대되는 경우도 우리는 얼마든지 명석한 관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관념 간의 관계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다시 한 번 흠에게 있어 사실의 문제에 있어서의 증명은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19) 같은 책, 83쪽.

2) 명증성의 정도와 정당화 문제

흠은 사실의 문제에 있어서 이성²⁰⁾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는 사실의 문제에서 이성²⁰⁾에 의한 정당화(justification)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당화란 작업이 믿음²¹⁾이 지식이 되게 하는 증거를 대는 논증이라고 본다면, 흠에게 있어 사실 문제의 정당화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지식의 문제와 사실의 문제는 다루는 대상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문제에 있어서의 정당화의 문제는 불필요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런데 흠은 개연성의 영역에서 ‘정당화’(justification)란 용어 대신에 “정당한”(just)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이 두 표현의 의미는 매우 다르며, 정당화란 용어도 현대 인식론에서 사용하는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말이다.²¹⁾

- 20) 여기서의 이성의 의미는 문맥상 매우 좁게 쓰이고 있지만, 흠은 이성을 매우 넓은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부분만 인용해 보자.

“(…) 인간의 이성을 지식과 증거 그리고 개연성에서 유래하는 세 종류로 구별해 두는 것이 훨씬 편리할 것 같다. 내가 지식이라고 말할 때 그 지식은 관념들의 비교에서 발생하는 확증을 가리킨다. 증거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부터 유래하면서 의심이나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논변이다. 개연성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명증성이다.”

여기서 흠은 이성을 매우 불확실한 정도의 명증성을 가지는 것까지 포괄하는 작용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이성의 정의에 따르면 사실의 문제에서도 이성의 작용이 적용될 수 있지만, 흠이 개연적 추론을 주로 논하고 있는 6절에서는 이성을 위의 의미보다 훨씬 협소하게 논증적 추론에만 작용하는 능력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흠 자신이 명시적으로 이성²⁰⁾에 의한 인과추리의 정당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소위 ‘이성²⁰⁾에 의한 정당화’에서 말하는 이성은 지식의 영역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위의 인용에서 사용되는 이성을 넓은 의미의 이성이라고 한다면, 6절에서 사용되는 이성을 좁은 의미의 이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Garrett, D(1997, 84~85쪽)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 21) 정당화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김효명(2001, 62쪽)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20세기 철학에서는 정당화(justification)의 문제와 발견(discovery)의 문제를 구분해서, 정당화의 문제는 철학이 다루어야 할 영역이고, 발견의 문제는 경험과학에서 다루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화의 문제는 어떠한 관념이나 믿음이 지식으로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묻는 일과 연관되며, 발견의 문제는 어떠한 관념이 나온 출처나 기원을

“우리가 기억이나 감각의 직접적인 인상을 넘어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들의 연결이나 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연결 또는 그 관계이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우리가 어떤 하나의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정당한 추리(just inference)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연결 또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에서 흠이 “정당한 추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해 보자. 앞서 흠은 대상 간의 연결이나 관계에서 직접적인 인상을 넘어서는 유일한 경우가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라고 했는데, 위의 인용에서는 인과 관계가 대상 간의 관계를 다루는 데에 있어 유일한(the only one) 관계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just)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흠이 사용하는 “정당한”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흠은 인과 추론을 성립하게 하는 요소로 시 공간 상에서의 ‘근접’(contiguity), ‘원인의 결과에 대한 우선’(priority), ‘필연적 연결’(necessary connexion)을 꼽았다. 또한 흠이 보기에 ‘필연적 연관’이라는 관념이 인과 추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이 관념은 대상에서나 대상 간의 관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필연성 대신에 우리가 대상 간의 관계에서 발견하는 것은 ‘불변적 결합’(constant conjunction)뿐이라는 것이다.²²⁾

대상에서 필연적 연결을 부정하고 주관의 영역에만 한정한다면, 인과 관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근접과 계기, 불변적 결합만이

묻는 일을 말한다. 이 두 구분을 흠에 적용한다면, 관념에서 인상으로 거슬러 올라가 관념의 효력을 물었다는 점에서 흠이 발견의 문제를 더 중시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흠이 이 둘 간의 구분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보는 해석도 일견 타당한 것 같다.

필자는 이 글에서 발견의 문제와 정당화의 문제 간의 구분을 다루지는 않겠다. 그 이유는 흠이 발견의 문제가 곧 정당화의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22) 따라서 필연성은 대상의 성질이 아니라 인간 정신이 가지는 성질이이며 이는 인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대상이 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여길 때, 여기에는 필연적인 연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과도 대상의 성질이 아니라 인간 정신이 본성상 가지는 성질일 뿐이다.

남는다. 하지만 이 기준은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설명력이 떨어진다. 과장해서 말하면, 한국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에서의 까마귀와 배의 관계도 인과가 될 수도 있다. 아마 흄도 이러한 결함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정당한 추리’라는 표현은 흄이 ‘필연적 연결’을 ‘불변적 결합’으로 대체하면서도 인과에 대한 또 다른 기준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렇다면 흄이 스스로 자신의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을 인용해 보자.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을 자주 반복(frequent repetition)함으로써 마침내 그 거짓말들을 기억하게 된다. 따라서 바로 이 반복에 의해서 판단력 또는 상상력은 감관, 기억, 이성 등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관념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정신에 작용할 수 있을 만큼 자신에게 강력하게 각인된 관념들을 가질 수 있으며 또 그 관념들을 완전한 양상으로 표상할 수도 있다. 실제로 교육(education)은 우리가 원인과 결과로부터 추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습관과 반복이라는 동일한 기초 위에 확립되었지만, 인위적(artificial) 원인이 아닌 자연적 원인은 아니므로, 그리고 또 교육의 공리들은 자주 이성과 상반되며 더욱이 때와 장소가 다르면 그 공리들 자체와도 상반되기도 하므로, 바로 이 점 때문에 철학자들은 교육을 인정하지 않는다.”²³⁾

흄은 위의 인용에서 “인위적인” “반복”에 의해서 생생한 관념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예로 든다. 거짓말쟁이는 감관이나 이성, 기억에 의하지 않고도 인위적 반복에 의해 관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인위적인 관념은 비록 교육에 의해서긴 하지만 생생한 관념이나 일종의 ‘믿음’(belief)²⁴⁾이 되어 정신에 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

23) *Treatise*, 117쪽.

24) 흄은 믿음(belief)을 “어떤 관념에 대한 강력하고 확고한 표상작용”, 즉 생생한 관념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어떠한 관념을 믿으면서 표상할 수도 있고, 믿지 않으면서도 표상할 수 있다. 이 두 표상작용의 차이는 믿음의 유무일 텐데, 흄에 따르면 어떠한 관념을 믿게 되면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표상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 이처럼 인위적인 관념이 자연적인 경우에 못지않게 정신에 작용하는 것은 실제로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흠이 이처럼 인위적인 반복의 경우를 인정하긴 했지만, 인위적인 경우를 “원인과 결과로부터 추론하는” “자연적인” 원인과 분명히 구분하였다는 것에 더 주목해 보자. 앞서 흠이 인과관계만이 사실의 문제에 있어서 정당한 추론이라고 한 것을 염두에 두면, 인위적인 교육은 정당하지 않은 추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연적 관념과 인위적 관념의 대조를 통해, 흠이 사실의 문제에 있어서도 더 정당한 논의와 덜 정당한 논의를 구분하려고 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관념들과 관념 연합의 원리를 다시 되새겨 보면, ‘감관’을 통해 받아들인 인상은 관념이 되고, 이 관념들이 특정한 원리(유사, 근접, 인과)에 따라서 연합되는 과정이 ‘반복’된다. 연합의 원리에 따라 반복되어 산출된 복합관념들과 관념들 간의 관계는 정신에 기억되며, 이 과정의 반복으로 우리는 ‘습관’을 형성한다. 이 모든 과정들은 ‘자연적’인 과정이지 ‘인위적’인 과정이 아니다.

이제까지의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흠이 말하는 정당한 추리는 인위적인 추리가 아니라 자연적인 추리를 의미하며, 이를 가름할 수 있는 작용은 이성이다. 그렇다면 흠이 제시한 또 다른 기준은 ‘자연적인’ 추리인 것일까?

이를 보충하는 흠의 또 다른 논의를 살펴보자. 흠은 『인성론』의 중반부에서 사실의 문제와 동일하게 사용했던 개연성의 영역을 다시 명증성(evidence)의 정도(degree)²⁵⁾에 따라 증거(proof)와 개연성(probability)²⁶⁾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증거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의심과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논증을 말하며, 좁은 의미의 개연성은 아직 불확실성이 수반되는 명증성을 말한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넓은 의미의 개연성은 사실의 문제를 다루는 모든 영역을 포괄하지만, 좁은 의미의 개연성은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가진 명제만을 포함할 것이다.

25) 같은 책, 124쪽 참고.

26)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앞의 개연성을 넓은 의미의 개연성, 뒤의 개연성을 좁은 의미의 개연성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예컨대 내일도 해가 뜬다는 믿음은 사실의 영역이긴 하지만 이 믿음이 단지 개연적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물론 이 명제는 상상력의 차원에서는 의심할 수 있겠지만, 이를 진심으로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명제는 한 번도 반대 사례가 나온 적이 없으며, 계속 반복되었다. 따라서 이 명제는 증거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⁷⁾

이렇게 사실의 문제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었던 개연성의 문제는 흄에 와서 명증성의 정도에 따라서 증거와 개연성의 영역으로 세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에서 흄이 사실의 영역에서도 어느 정도의 명증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좁은 의미의 개연성은 다시 ‘원인의 개연성’(probability of causes)과 ‘우연의 개연성’(probability of chance)으로 구분된다. 조금이라도 불확실성을 가지는 명제는 모두 개연성의 영역에 속하지만, 그 불확실성의 정도는 다양할 것이다. 이 때문에 흄은 가장 큰 구분으로 우연과 원인의 구분을 하고 있다.²⁸⁾

우연의 특징은 무차별적(indifferent)이라는 것이다. 우연에서는 어떠한 규칙성도 찾아볼 수 없으며 그 자체로서는 아무 것도 아닌 원인의 부정(negation)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우등함도 열등함도 없다. 또한 우연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추론도 불가능하다. 만약에 우연에 조금이라도 규칙성이 발견된다면 이는 우연에 원인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지 우연 자체에 규칙성이 생긴 것은 아니다.

원인의 개연성은 여러 종류이지만, “현전하는 인상들에 대한 관념들의 연합”²⁹⁾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런데 흄은 경험론자답게 증거로 간주되는 관념이나 명제들도 처음에는 개연성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사례의 ‘반복’을 통해 점차적으로 개연

27) 흄은 자신이 이제야 이러한 구분을 하는 이유를 해명하는데, 이제까지의 지식과 개연성의 구분은 로크를 비롯한 기존의 철학자들의 구분을 따른 것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같은 책, 124쪽 참고.

28) 물론 여기서 말하는 원인은 느슨한 의미로, 증거의 영역에서도 원인 개념은 유효하다.

29) 같은 책, 130쪽.

성의 영역에서 증거의 영역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연성의 영역이나 증거의 영역은 모두 인과 추론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단지 그 정도에서 구분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구분을 통해 흠이 시도하는 정당화는 개연성의 영역에서 증거의 영역이 되는 명제를 밝히는 것이다. 이는 곧 사실 관계에서 인과관계 반복의 정도(degree)를 따지는 일이기도 하다. 흠에게 있어 정당한 추리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따지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어떠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을 추리하였을 때 이 추리가 정당화되는 일은 곧 비슷한 유(species)의 대상들이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로 반복되는지를 묻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반복에 의한 인과의 성립은 인위적인 반복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현전하는 인상을 가지는 자연적인 전이여야 할 것이다.

III. 결론

이제까지 흠의 개연적 추론을 중심으로 첫째, 논증적 추론과 구분되는 개연적 추론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인과 추리에서 정당화 문제는 어떻게 발생되고 해결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각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째, 논증적 추론은 관념 간의 관계를 다루고 개연적 추론은 대상 간의 관계를 다룬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의 의미는 외부 대상이 아니라 인상이나 그에 준하는 생생한 지각을 말한다. 사실의 문제에서의 추론의 오류를 막기 위해서는 주어진 관념을 단순 관념으로 나누어서 이 관념들의 최초의 인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한다. 논증적 추론에는 관념만이 필요하지만, 개연적 추론에는 인상과 관념이 ‘대상’과 ‘추론’을 위해 모두 필요하다.

둘째, 인과 추리에서는 인과의 규칙적 반복의 정도가 높아져서 개연성의 영역에서 증거의 영역으로 명증성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이 정당한 추리이다. 사실 문제에서의 필연성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문제가 되며, 대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불변적 결합’ 뿐이다. 따라서 사실의 문제의 영역에서 정당한 추론은 필연성의 문제가 아니라 개연성, 즉 확률의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 흄이 사실의 문제에 대해 전개한 논의는 그의 회의주의 자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게 한다. 흄은 사실의 문제에 있어 인상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의 여지를 줄이려고 했으며, 사실 문제의 확실성과 정당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정도’(degree)라는 답변을 제시한 것이다.

참고문헌

- 데이비드 흄, 이준호 옮김,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1—오성에 관하여』, 서광사, 1994.
- Hume. D. *A Treatise of Human Understanding*, Selby-Bigge,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 김효명, 『영국 경험론』, 아카넷, 2001.
- Harold. W. N. *Routledge Philosophy Guidebook to Hume on Knowledge*, Routledge, 1999.
- Garrett. D. *Cognition and Commitment in Hume's Philosophy*, Oxford University Press, 1997.